

전북도, 폭염 안전망 가동…취약계층 보호 총력

도내 온열질환자 누적 62명
취약계층 안부·현장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저감시설 운영
농축산 피해 예방 집중

전북도가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예찰, 농축산 피해 예방 등 전방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 결과 19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는 누적 62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 축산 분야에서도 같은 기간 가축 4

만 8,874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전국적으로는 온열질환자 1,019명(사망 4명)·20만 4,496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13개 협업부서와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시군·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해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우체국 200곳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했다.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 24억 9,000만원과 무더위쉼터 병방기 점검 지원 예산 2억 원을 확보해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방물품 보급, 현장 예찰 등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3만 9,000여 명과 중증장애인 6,000여 명에 대해 생활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복지서비스 연계도 이어가고 있다. 노숙인과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과 거리 예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제조업체 2,797곳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바람·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에게는 예찰 활동과 예방물품 지원을 병행한다.

도내에는 무더위쉼터 6,300곳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500여 곳이 가동 중이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쉼터의 야간·연장 운영에 나선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취약농가 현장점검,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재난문자와 전광판, 홈페이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경찰·소방·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해 취약시간대 순찰과 현장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 등 7개 시군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취약지역 예찰과 생수 지원, 양심양산 운영 등 현장 대응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택립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폭염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재난인 만큼 홀몸어르신과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요령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힘 전북도당위원장 ‘2파전’ 경쟁 돌입

남원축협 조합장 5선 강병무
전북도의원 출신 허남주
2명 후보 등록 절차 마무리



강병무 후보



허남주 후보

2026년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 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현재 남원·임실·순창·장수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병무 후보자와 전 전주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및 제10대 전북도의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 정치와 당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섰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희재)는 당헌·당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한편 도당위원장 선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이전 안돼”

보건복지부 서울 집적안 비판
“국가균형발전 역행 우려”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 제안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촉구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에 신축 이전하고, 기존 (강남구)부지를 공공의료 클러스터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에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강남구)에 국립의전원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는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며 “국가 공공의료의 핵심기관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을 다시 서울에 집적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국립의전원의 본래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문의 사직 사태는 지역 필수의료의 현실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치료할 병원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만·소아청소년과·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일수록 인력난이 심각하며, 전문의 한 명의 공백이 의료체계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지난 5월 제정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역과 필수요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국립의전원은 수도권 의료로 강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공공의료 클러스터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지방 국립의전원은 사실상 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학교육은 강의실만이 아니라 임상실습과 전문의 수련, 연구와 정책 기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구·정책 기능은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교육시설만 설치한다면 교육과 수련의 중심은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남원은 2018년부터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지역이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전북·전남·경남 접경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갖춘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자리 잡는다면 전북은 물론 전남광주특벌시, 충청 일부, 대구·경북 서부, 경남을 아우르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의료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를 조속히 남원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서울에 다시 집적하려는 구상을 재검토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남원 이전을 포함한 국가 공공의료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가 공공의료의 미래는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의료체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사유림 ‘먹튀’ 투기 차단 법안 대표발의

‘산림 투기 근절법’ 발의
사유림 매수 제한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로 팔았다 취득한 뒤,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경매로 팔았다 취득한 보전산지 등을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산림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성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사책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

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환경전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국가 정책을 사의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매를 통한 단기 취득 후 곧바로 국가 매수사업에 편승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한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성실한 산주들이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군산·남원 생활권 도시숲 넓힌다

도시바람길숲 실시설계 착수
군산 철길숲 확대·남원 신규 조성

전북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군산 철길숲 확대 조성사업과 남원시 도시바람길숲 신규 조성사업

의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연차별 공사를 거쳐 생활권 중심의 녹색공간을 확충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군산시는 기존 철길숲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정삼거리부터 구 개정역까지 5ha 규모의 도시바람길숲을 확대 조성한다.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본

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완공된 기존 철길숲과 연결되는 선형 녹지축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치유정원과 역사치유길, 순환산책로, 이영춘 박사 기념광장 등을 조성해 치유형 녹색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충림 녹지대를 조성해 도시

바람길 기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남원시는 요전로 일원 등 55ha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숲을 신규 조성한다.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 도시바람길숲은 만인공원과 천년역사축 조성사업 등 기존 녹지사업과



무더운 여름에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폭염 주의보 33℃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35℃

일 최고 체감온도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열사병

고온 다습한곳에 오래 머무는 경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여 붉은색으로 변함
고열과 심한 두통, 식은땀, 탈진증상



일사병

태양볏 아래 오래 머무를 경우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지며 얼굴이 창백해짐
무력감, 현기증, 두통증상

Copyright © 2026 Jeonbuk Times. All Rights Reserved. | 전북타임스 |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전북TP, 지역 선도기업 성장 밀착지원

우수 선도기업 방문 현황 청취·전학 지원 사업 고도화에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전북TP가 도내 시·군 지역 선도기업 성장 밀착지원에 나서고 있다. 21일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지역산업 성장 도모 위한 '2026년 제6회

선도기업 지역 대표자 협의회(전주·임실·순창·남원)'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주, 임실, 순창, 남원 지역 선도기업 대표자 및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26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우수 선도기업인 (주)리퓨터와 (주)나노솔루션 익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해 기업 현황 청취와 생산 현장 견학 등을 두루 살폈다. 이어 2026년 선도기업 지역별(전주·임실·순창·남원) 교류회의 효과적인 운

영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시·군 경제 유망적 소통 채널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 정보와 시급한 지역 경제 현안을 긴밀히 공유하며 기업 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여 선도기업 대표는 선도기업 협의회 통한 “도내 우수 제조 시설 현장 견학과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 벤치마킹 등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줘 감

사하다”고 밝혔다. 이후 간담회 자리에서는 각 기업 현업 직면 경영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전북TP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 시간이 이어졌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술개발(R&D) 및 자율프로그램 등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연계해 수립된 현장 목소리를 향후 지원 사업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 힘 모은다”

농촌융복합산업체 활성화 기술 지원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한국농식품연구회-경북도원 공동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한국농식품연구회는 농촌진흥청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 소속 농식품 개발 연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중앙과 지방 협업을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2년에 발족해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이번 학술토론회 주제는 ‘로컬에서 글로벌로, 융복합 산업이 디자인하는 K-푸드의 미래’다. 최근 급성장하는 케이(K)-푸드 열풍을 반영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가공기술을 소개하고, 지역 농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R&D)로 국민건강증진과 우리 농산물 가치 제고 사례도 공유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이끌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식품연구회는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체에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4000개소를 육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지방 농촌



농촌진흥청은 22일부터 오늘까지 ‘한국농식품연구회-경북도원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농촌진흥청>

진흥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농산물의 식품 산업 활용도를

/김영태 기자

“전북형 공유경제 혁신 아이디어 찾습니다”

경진원, 공유경제 인식 확산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전북형 공유경제 인식확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경진원의 이번 공모전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ESG 실천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공유경제란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한 자원, 물건, 공간, 서비스 등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성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공유경제의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원 재 활용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ESG(Environment) △기타 지속 가능한 환경가치 창출 등 일상 속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다. 공유경제에 관심 있는 자는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최대 5인)으로써 ‘아이디어 제안’과 ‘슬로건’ 중 한 부문을 선택해 솜씨이나 제안서로 제출하면 된다.

경진원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목적 부합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22건(최우수 2, 우수 2, 장려 6, 입선 12)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는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방법은 경진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

기업 산업안전보건 법령 이해도 높여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회원 기업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개최했다.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1일 전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 등을 강화했다. 이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유신 차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강의를 펼쳤다.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규제 대응과 사업장 내 실질적인 위험요인 발굴 및 평가 방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애로를 겪던 실무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철저한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고향주부모임 ‘이심점심중식지원’ 실천

농심천심 가치 실현
따뜻한 나눔 의미 가져

전북농협 육성 (사)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와 부안농협분회가 21일 ‘이심점심중식지원’ 사업을 실천했다. ‘이심점심중식지원’은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영농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촌일손과 예비인력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직접 조리한 삼계탕을 준비해 농촌인력 10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또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하는 농심천심 가치를 실천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경리회장은 “앞으로도 농심천심 가치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봉사과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기상지청-전주시 ‘맞춤형 폭염안전정보’ 제공

열대야 대응 ‘현장관측’ 수행

전주시민 열대야 대응 전주기상지청 현장관측 수행이 이어진다. 전주기상지청-전주시는 21일 열대야 시민안전 위한 기상관측차량 활용 한 현장관측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에 따르면 “열대야는 낮 동안 축적된 열이 밤에도 충분히 식지 않아 시민의 휴식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기상이다”고 밝혔다. 이번 관측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열대야 주의보 연계 관측이기도 하다. 기존 기상관측망만으로는 상세한 기상파악이 어려웠던 도심 생활권 야간 기상 특성 조사와 지역 맞춤형 폭염 대응 위한 기초자료 생산 위해 추진된다. 현장관측은 기상관측차량에 탑재된 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해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기압 등 기상요소를 1분 간격으로 관측한다. 이에 따라 인근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자료를 함께 비교해 각 지역 열대야 발생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관측은 열대야 발생이 예상되는 날을 중심으로 현장관측이 실시되며



관측 종료 후 주요 지역별 최저지온 분포와 바람·습도 등 기상조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결과는 향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무더위쉼터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 대응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선정과 야간 폭염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전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도심 생활권 열대야 특성을 면밀히 관측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폭염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상지청은 관측을 시작으로 관측자료와 폭염 관련 정책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전주시 도시열섬 현상과 열대야 취약성에 대한 후속 분석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K-농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속도 낸다’

바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26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이하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농기자재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태국 등 24개국에서 초청한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55개사와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76개사가 참가해, 총 500여회 이상의 일대일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매년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수출상담회(총 3회)를 통해 총 상담액 74.9백만불(857건),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16.7백만불(68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상담회가 K-농기자재의 신시장 개척 및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의 거래 이력, 재무 안정성, 유통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의사가 높은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5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김제신협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공로 인정

최근 김제신협 한 직원이 지역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피 예방에 일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제경찰서는 지역민 피해 방지 공로를 인정해 김제신협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0일 오후 8시경 택시기사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를 태우고 운행을 하던 중 “부안신협으로 가달라”는 말을 듣고 “김제시에도 신협이 있다”고 안내했다.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점을 감지한 택시기사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때마침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의 잘못된 ATM기 조작으로 인해 현금이 ‘미입금’ 처리된 상태로 계류돼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김제경찰서 형사과는 현장에 도착했으며, 김제

신협 직원 또한 CCTV 기록 확보, ATM기 거래정지 이후, 현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움직여줬다. 이는 신협 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수사협조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후, 김제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을 구속할 수 있었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경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신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사기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합원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지역민 선물 연극 공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연극 무대를 마련해 지역민들에게 선물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준비한 연극은 ‘야, 춘기야!’ 공연이다. ‘야, 춘기야!’는 교과서에 실린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사춘기 딸과 엄마 사이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화해를 따뜻하게 그려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안주문화관광재단이 함께 마련했다. 연극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전북혁신도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새울리플에서 막을 올린다. 관람 신청은 포스터 속 큐알(QR)코드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200명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공사는 전기안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인수위, 40일 활동 마무리”

교육인권 보호망·전북 유학·합의제 감사위 등 3대 과제 최우선 추진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4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북 교육의 청사진을 담은 10대 핵심 과제와 50개 세부 과제를 21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말까지 공약 재구조화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백서를 제작해 발간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꼽은 가장 시급한 3대 과제는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 지역 소멸 위기 대응,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다.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1~2명의 변호사를 채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고, 100명 이상의 현장 조사·대응팀을 가동해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 소멸 대응책인 ‘전북유학’ 프로

젝트는 당초 구상했던 해외 유학생 유치기 범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으로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영남과 수도권 등 국내 타지역 학생 유입에 집중해 목표치를 1000명 단위로 현실화했다.

또한 교육청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감사관실의 권한과 외연을 확대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조례 제정을 통해 상설 기구로 설치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흐름에 대비해 방만한 예산 집행을 통제하고 무리한 계속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도 세웠다.

인수위는 약 5조 원 규모의 전북 교육 예산에 맞춰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학생 직접 교육비 재원 확보를 위해 진안 학생복지관 설립 등 다수의 시설 중심 사업의 중단을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기초학력 책임제와 미래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기초학력포털 진단 및 튜터제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1인 1예술 교육과 독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진단 플랫폼 구축과 전북학생진로진학교육원 설립을 핵심 과제에 포함시켜 학력 신장과 진로 설계를 동시에 지원한다.

지역 연계를 위해 14개 시군별 특화공약도 마련해 전주 혁신도시 국제형 특성화고 설립, 새만금 미래신산업 연계 특성화고 지정,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특성화고 추진 등을 구체화했다.

반상진 인수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북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 5대 정책 방향을 설계했다”며 “천호성 교육감이 4년 임기 동안 전북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책 중심의 과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사진=전북타임스>

/최성민 기자

군산시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 개최

25일 문화공연·폭죽쇼

군산시가 오는 25일 선유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와 함께하는 ‘2026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선유도의 대표 관광지인 아름다운 노을과 해변을 배경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한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시원한 바다와 붉게 물드는 석양이 어우러지는 선유도만의 특별한 풍경 속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비롯해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화려한 폭죽쇼가 여름밤의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해변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진 공연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가 선유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북대 하계 활동단, 우즈베키스탄 봉사

전북대학교 하계 국제화역량활동단이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중앙아시아로 교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이번 활동에는 한국 대학생 20명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명 등 총 25명이 참여해 타슈켄트 소재 ‘School 107’에서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전통놀이, K팝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활동단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세종학당, 아주대 및 부천대 타슈켄트캠퍼스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진학 상담을 실시하고,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을 찾아 양국 외교 현황을 파악했다.

유창호 활동단장은 “놀이 중심 한국어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교감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외 교육봉사와 국제교류를 연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부안군 ‘해변형 야간 관광 콘텐츠’ 본격 운영

24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부안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변산·격포·모항을 잇는 해변형 야간 관광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변산해수욕장에서는 ‘2026 변산 비치파티’가 매일 저녁 운영되고 격포해수욕장 광장에서는 ‘격포 오션 바이브’가 매일 밤 열리며 모항해수욕장 캠프존에서는 ‘모항 비치 버스커스’가 매주 목·금·토·일요일 저녁 시간에 운영된다.

군은 여름철 대표 관광자원인 변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낮뿐 아니라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변산 비치파티를 중심으로 해변별 특색을 살린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안의 여름밤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계획이다.

격포 오션 바이브와 모항 비치 버스커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야간 관광 진흥도시 공모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된 다.

군은 지난해 ‘2025 변산 비치팝’을 통해 야간 체류와 지역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올해 사업 범위를 격포와 모항까지 확대했다.

올해 해변 콘텐츠는 화려한 대형 행사보다 감성 조명과 버스킹 공연을 중심으로 오래 머물고 싶은 여름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산 비치파티는 해변 공연과 버스킹, 비치팝이 어우러진 대표 해변 콘텐츠로 가족과 연인, 친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격포 오션 바이브는 DJ 공연과 라이브 퍼포먼스로 활기찬 분위기를, 모항 비치 버스커스는 어쿠스틱 공연과 감성 버스킹으로 편안한 해변 문화를 선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야간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변형 야간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한·중 청소년들, 익산서 스포츠 교류로 우정 나뉨

4개 종목 경기 및 문화체험

익산에서 한·중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우정을 쌓고 있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19회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에 참가한 양국 청소년 선수단은 이날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우호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익산시체육회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며, 중국 하이난성 선

수단과 한국 청소년 선수단,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한다.

중학생으로 구성된 양국 선수단은 농구·바둑·배드민턴·탁구 4개 종목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연습경기와 23일 공식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스포츠를 매개로 우정과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교류에 앞서 지난 20일 환영연을 열어 양국 선수단의 만남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교류를 응원했다.

환영연에는 최정호 익산시장도 참석

해 참가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선수단은 경기뿐 아니라 하림푸드투어와 국립익산박물관 방문 등 다양한 문화체험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익산의 식품산업과 백제 역사·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이번 교류가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숙박과 외식, 관광 등 지역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올해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를 유치하며 국제 스포츠교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김주필 체육진흥과장은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류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꿈과 가능성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창극 ‘춘향’ 일본 극장 가득 메워

한일 전통공연예술 교류 확대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 9일 일본 오사카 국립분리극장에 이어 13일에는 국립극장 오키나와 대극장에서 창극 ‘춘향’을 선보이며 일본 2개 도시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오사카 공연에는 705명, 오키나와 공연에는 565명이 찾아 총 관람객은 1,270명으로 집계됐다.

객석 점유율은 오사카 97.4%, 오키나와 94.6%로, 전체 96.1%를 기록하며 국립민속국악원 대표창극 ‘춘향’의 해외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번 순회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과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하는 ‘투어링 케이-아츠(Touring K-Arts)’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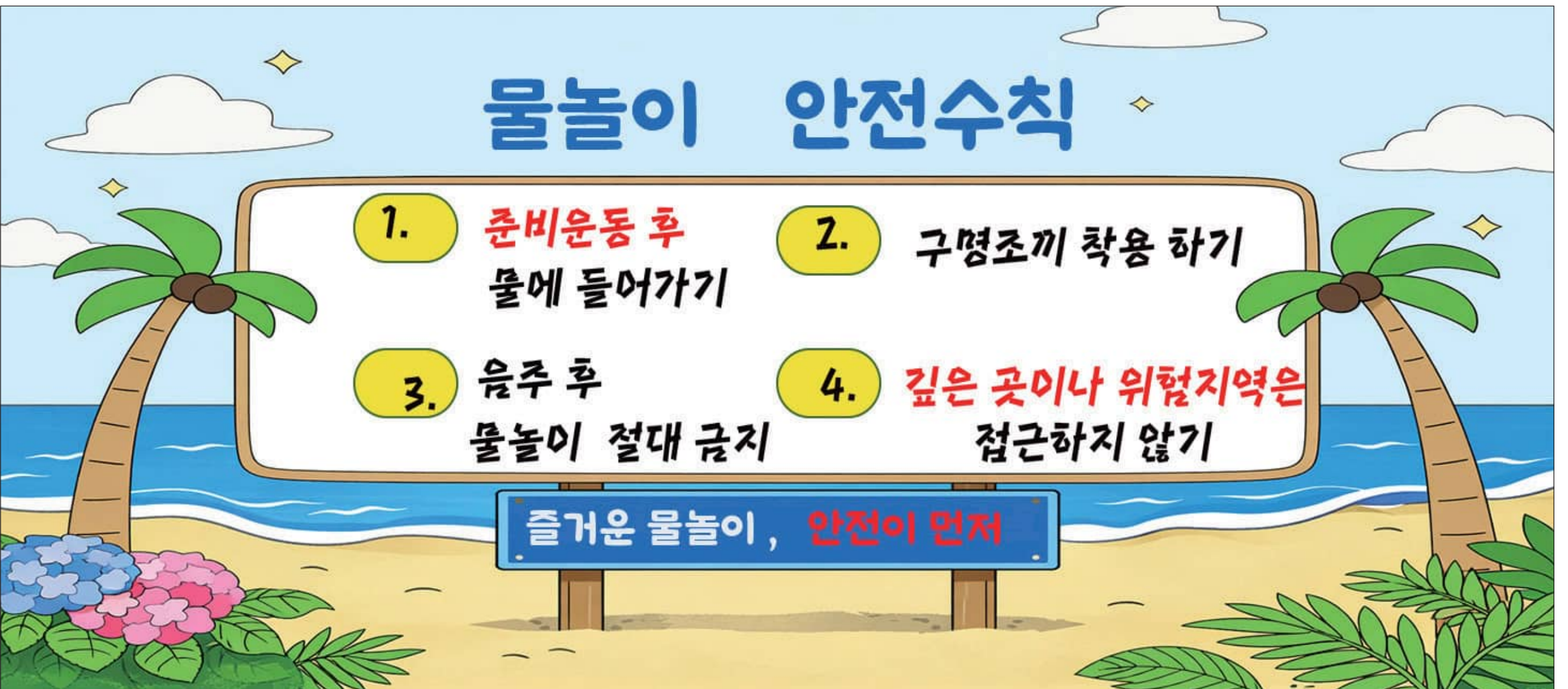
춘향의 고장 전북 남원에서 제작한 창극 ‘춘향’이 일본 국립극장 무대에 올라 한국 창극의 매력을 알리고, 한일 전통공연예술 교류의 폭을 넓혔다.

배산식 한국예술종합학교연극원 교수가 대본을, 한승석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가 작창을 맡았으며, 김정 연출이 무대화했다.

판소리 특유의 소리와 호흡에 기악과 무용을 결합해 춘향의 감정선을 입체적으로 펼쳐냈으며, 일본어 자막을 제공해 현지 관객들이 작품의 이야기와 정서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국립민속국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소리와 창극이 지닌 멋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작품이 세계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해외 공연과 국제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읍시, 국가유산·전통사찰 88곳 재해 대비 안전점검

정읍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지난 13일부터 관내 국가유산과 전통사찰 총 88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국가지정·등록유산 17곳과 도지정·등록문화유산 45곳, 향토문화유산 16곳 등 국가유산 78곳과 전통사찰 10곳이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먼저 각 읍면동이 현장을 찾아 기초적인 육안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석축과 배수로, 담장 등에 균열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방시설과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재난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찾아낼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난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정읍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여름방학, 예술아 놀자” 익산시립예술단 특별공연

익산시립예술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익산시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익산시립예술단의 특별공연 ‘예술아, 놀자’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익산시립합창단·무용단·풍물단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로, 합창과 창작무용, 전통연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다채로운 무대 연출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공연예술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공연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0분간 진행되며 3부로 꾸며진다. 1부 ‘귀가 좋극, 함께 부르는 노래’에서는 익산시립합창단이 애니메이션 OST와 친숙한 대중가요를 합창으로 들려준다.

2부 ‘눈이 번쩍, 무용극 러브스토리’에서는 익산시립무용단이 첫사랑의 설렘과 추억을 창작무용으로 표현한다. 이어 3부 ‘심장이 쿵쿵, 신나는 우리 전통연희’에서는 익산시립풍물단이 판굿과 사자춤을 선보이며 전통연희의 흥과 매력을 전한다.

관람은 전석 무료이며,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서 1인당 최대 4매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개정면, 역사·문화 한 권에 지역 유·무형 자산 기록물 발간

군산시 개정면이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와 문화, 인물, 전통, 자연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며 지역의 정체성을 재조명했다.

2026년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작된 ‘개정면의 숨겨진 보물이야기’는 지역주민과 개정스토리텔링연구회가 함께 참여해 개정면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정리한 기록물이다. 지역의 소중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담아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물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실현된 사례로,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조사하고 기록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민이 지역의 가치를 스스로 발굴하고 보존하는 주민 참여형 지역문화 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은호 개정면장은 “이번 책자 발간은 지역의 소중한 유·무형 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노인 일자리’ 전국서 인정

보건복지부 평가서 5개 기관 6개 부문 ‘우수’ 역대급 성적 거둬

민선 9기 익산시가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돕기 위해 펼쳐온 노인일자리 정책이 정부의 전국 단위 평가에서 ‘역대급 성적’을 거두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행정력을 입증했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익산지역 수행기관 5개소가 총 6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에 있는 노인일자리수행기관 1,16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2025년) 사업의 운영 성과, 참여자 관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엄격하게 종합평가한 것이다.

익산시는 전북도 내 6개 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우수기관을 배출하며 1위

실적을 기록했고, 이에 따른 포상으로 총 8,000만 원 재정 지원금을 확보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의 영예는 지역 사회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온 전북익산시니어클럽(포상금 2,500만 원)과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포상금 1,500만 원)가 차지했다.

이어 공익과 역량, 공동체 복합 분야에서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이 B등급(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공익·역량 분야’에서 B등급(포상금 1,000만 원)과 어르신 역량 강화 부문 B등급(포상금 500만 원)을 동시에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고,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역시 B등급(포상금 1,000만 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과는 시가 단순히 용돈을 벌여주는 단기 보조형 일자리에 머물지 않고,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개개인의 역량에 맞춘 공익형, 역량 중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 시장형 일자리를 다각적으로 기획해 낸 실리적 행정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시는 14개 민간 수행기관과 톨나바퀴 같은 긴밀한 소통 체계를 다지고

예산 집행을 간결하게 관리해 왔다.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시상식은 오는 8·9월 중 정부가 개최하는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번 수상 외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공동체사업단 초기투자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통합돌봄 연계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등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행희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는 매일 현장에서 땀 흘려 참여해 주신 자랑스러운 어르신들과 관계자들이 한팀으로 뭉쳐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익산만의 지역 특성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 어르신들의 삶이 편안하고 활기찬 것으로 기획해 낸 실리적 행정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시는 14개 민간 수행기관과 톨나바퀴 같은 긴밀한 소통 체계를 다지고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김천시, 농특산물 소비 촉진 협력

농특산물 교류 행사 개최 상생협력 이어가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김천시와 함께 21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개최하며 양 도시 간 우호 협력과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양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교류·판매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배나호 김천시장을 비롯한 김천시 방문단 50여 명이 군산을 찾아 양 도시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군산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주문을 접수한 결과, 포도(거봉·샤인머스켓) 558상자, 자두 936상자, 복숭아 1,321상자 등 총 2,815상자, 약 4,200만 원 상당의 주문을 받았다. 사전 주문 물량은 행사 당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배부했으며, 현장 판매까지 포함해 총 5,000여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를 잘 찾지 못했거나 현장 판매에서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군산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에서 행사와 동일한 품목을 같은 가격으로 연장 판매한다.

연장 판매는 △군산로컬푸드직매장(박물편점)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철길마을점) △옥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진행된다.

박용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생산 농가에도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김천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며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9월 김천시를 방문해 군산쌀과 환절쌀보리, 박대, 홍어 등 군산의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판매하는 교류행사를 개최하며 상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왕진버스’ 의료 공백 메운다

농업인고령 주민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정읍시는 21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황도현농협과 함께 두 번째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농촌 주민 3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농촌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과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양방 진료와 안과·치과 검진,

근골격계 질환 관리 등 맞춤형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의료봉사회 소속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내과 진료와 약국 상담을 진행했다.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한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시력검사, 돋보기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주민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신태인농협에서 올해

첫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이번 황도현농협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칠보농협에서 세 번째 왕진버스를 운영해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병원 이용이 어려운 농촌 어르신과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료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강화

에너지 취약계층 200가구 냉방용품 지원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현장 중심의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2026년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마련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최근 2년 이내 유사 물품을 지원받지 않은 에너지 취약계층

약 20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냉각이불세트 100개와 선풍기 100대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물품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과 함께 공무원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살피고 맞춤형 복지 상담과 주거환경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폭염과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민선 9기 익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여름 명소 25일 문 연다”

정읍천 미로분수
내장산 워터파크 개장

정읍시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과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를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낮에는 물놀이를, 밤에는 음악분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는 시설 정비를 마치고 오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평일 오후 8시와 9시 등 하루 2차례 열린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3시와 5시, 8시, 9시 등 하루 4차례 운영한다.

음악에 맞춘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분수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도 같은 날인 25일 개장한다.

미로분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복합형 바닥분수 시설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운영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매시간 40분 동안 물놀이를 진행한 뒤 20분간 휴식한다.

시는 관계 공무원과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그늘막과 탈의실, 냉방 쉼터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두 시설이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여름 휴식공간을,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겨 찾는 정읍의 대표 여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카카오 알림톡으로 간편 확인

익산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내달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 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우편물 미수령, 소액 환급금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올해 카카오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 안내를 강화한다.

카카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휴대전화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신속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위택스와 정부24를 통해서도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익산시청 징수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원 징수과장은 “카카오 알림톡 안내를 통해 그동안 환급 안내를 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보다 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소방서, 제45대 김상곤 서장 취임

신뢰받는 소방 구현

군산소방서는 7월 21일자로 김상곤 서장이 제45대 군산소방서장으로 공식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고 밝혔다.

김상곤 서장은 2003년 소방간부후보생 제12기로 임용된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익산소방서장, 임실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현장 대응과 예방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행정 역량을 쌓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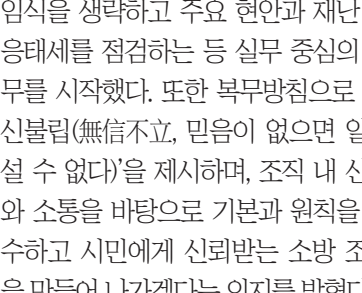
특히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상곤 서장은 취임 첫날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등 실무 중심의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복무방첩으로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을 제시하며, 조직 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재난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상곤 군산소방서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 대응은 물론, 선제적인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 여성농민, 정읍서 권익·연대 한목소리

‘2026 제27회 전북여성농민한마당’이 21일 정읍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여성농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여성농민들이 영농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데도 의미를 뒀다.

행사는 정읍시여성농민회를 비롯해 군산시·익산시·전주시·김제시·고창군·순창군·임실군 여성농민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이 주관했다.

오전에는 여성농민 정책 축제가 진행

됐다. 오후에는 개회식과 초청공연, 여성농민 정책공연,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업 현안과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역할을 함께 고민했다. 시·군별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을 넘어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마당이 여성농업인 간 화합과 소통을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7

고창·김제, 지역기업 지원 강화2(題)

고창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계약 참여 기회 보장

군은 그 동안의 계약내역을 분석해 긴급한 재난복구 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을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만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선거기간 불가했던 소수 업체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내 다수 업체에게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총량제 도입을 위해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소수업체 편중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의 수의계약 총량제는 본청과 읍면을 통합해 공사 1인 수의계약 건수를 업체당 반기별 10건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중소기업 금융지원 추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

김제시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며 오는 30일까지 사업접수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본사와 공장을 관내에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용자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기업당 융자 한도액은 5억원이며, 융자기간은 업체당 2년으로 1회에 한해 1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4%, 여성·청년기업, 김제시 표창 수여 기업은 5%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은행은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 전북은행 김제지점, 국민은행 김제지점, IBK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하나은행 광주전주영업본부, 우리은행 김제지점, 신한은행 호남서부본부 등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변하는 경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지원 정책과 신규 사업을 발굴해 지역 내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심덕섭 군수, 기획예산처 방문 현안사업 반영 건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0일 오후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사업과 핵심 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우선 심 군수는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고창읍 우회도로(국도23호선) 개설공사(1798억원)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국도23호선은 신활력산업단지와 덕산지구 도시개발 구간을 관통하면서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구간이다.

해리 동호~금평간(국도7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150억원)의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7단계)’ 사업 반

영’도 건의했다. 노을대교 건립과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폭발적인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으로 선제적인 선형개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서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24억원) 선정을 위한 예산규모 확대 및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군이 전국 최대 규모 외국의 계절근로자를 운영 중인 만큼, 권역별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항우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북분지농공단지 폐수 연계처리시설 확충사업(117억원)과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492억원)의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두 사업 모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부처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감액 없이 원안 반

부안군의의회, 제10대 첫 의정활동 시작

제373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부안군의의회(의장 이현기)는 21일 제37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소멸의 위기를 활력의 기회로, 부안의

미래를 바꾸는 4대 융합 전략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계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주거·일자리·복지·연계한 4대 융합 전략을 제안하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활력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강세 의원은 ‘확보한 성과를 군민의 삶으로 있는 군정 전환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양적 성과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군민이 체감하는

고창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2월 14일까지 비대면·방문조사

고창군이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 사실조사(7월 20일~9월 7일)에 이어 방문조사(9월 8일~11월 9일)가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별 대표 1인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GPS 기준) 내에서 맞벌이 가구나 1

인 가구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인구 관리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한은 주민등록표 적관조치 공고 기간인 11월 30일까지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사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포스터 공개

10월 1일 개막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포스터가 지난 20일 공개됐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제28회 포스터는 넓게 펼쳐진 황금 들녘 위 ‘대지아트’를 통해 ‘전통을 잇다, 미래를 심다’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상징해 냈다.

이와 함께, 시선을 사로잡는 쌀알 무늬 속 귀여운 마스코트 일러스트를 비롯해, 김제지평선축제의 프로그램들이 조화롭게 담겨있다.

포스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축제 현장의 신명나는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져, 울거울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완벽한 초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축제 홍보를 위해 새로 공개된 공식 포스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온라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3일 김제지평선



<사진=김제시>

축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개천절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로 축제장을 방문하실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울해도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부안군>

부안군,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부안군은 방상윤 부군수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직접 관내 주요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주의보 발효 등 무더위가 기세를 부림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인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상윤 부군수는 무더위쉼터를 이용

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가 심한 오후 시간대(오후 2~5시) 야외 작업 자제 및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했다.

군은 폭염 대책 기간 동안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방상윤 부군수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 유지·관리와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만족도 “매우 높음”

고창군이 퇴원환자의 집에 의료·돌봄·식사 등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의 만족도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대상자 대부분이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앞서 군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물품 등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폭염 날리는 ‘오아시스 쉼터’ 운영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 1층에 냉방고와 제빙기를 설치해 ‘얼음·생수 오아시스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장협의회(회장 하태목)의 후원으로 마련된 냉방고와 제빙기는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과 어르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으며 주민들은 시원한 얼음과 냉방 보관된 생수를 이용,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또한 주민 조선자씨는 오아시스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료를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이미정 금산면장은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장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행정복지센터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원한 쉼터로 운영해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산림조합-김제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부안군은 지난 20일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과 김제산림조합(조합장 이우열)이 고향사랑기부금 각 200만원을 상호 기부하며 양 지역의 발전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양 조합은 지역 산림 발전과 임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협력해 온 인연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간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기부에 뜻을 모았다.

특히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산림조합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함께 응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오세준 부안군산림조합장과 이우열 김제산림조합장은 “이번 상호 기부가 부안과 김제의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되고 양 조합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발전을 응원해 주신 양 조합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가 기관·단체 간 자발적인 상호기부와 지역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백산면, 39개 경로당 찾아 어르신 안부 살펴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임 정숙영 면장이 지난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역 내 39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자 인사로 백산면장에 부임한 이후 주민들과 가장 먼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로당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무더위 속 건강상태를 살피고, 냉방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폭염에 대비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여름철 건강관리 수칙을 강조하며 안전한 여름나기를 당부했다.

정숙영 백산면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고민하고, 먼저 찾아가 살피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백산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현장 중심 실습 강화

부안군은 지역 문해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청우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부안군 문해교육사(3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 문해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달 4일까지 총 8회 4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문해교육의 이해와 성인학습자의 특성,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 설계 등 문해교육사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강화한 점이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과 발표, 수업 시연 등을 운영하고 군에서 활동 중인 문해교육사가 현장의 경험과 교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 문해교육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읍·면 문해교실과 초동학력인정 문해교육 등 다양한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문해교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현장 이해를 높이고 지역 문해교육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10대 완주군의회 첫 의정 돌입

제302회 임시회 개최

민생안전지원금 추경 심사

“군민 눈높이서 역할 다할 것”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가 21일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의회 첫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성중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정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번 임시회는 앞으로 4년간 완주군의 미래와 군민의 삶을 책임질 제10대 의회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안전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성 의장은 “민생안전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인 만큼 의회는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살펴야 한다”며 “지원금 편성으로 완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행복과 완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라며 “의회의 정책 제안과 지적을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성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 대응과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에 힘쓴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는 의회도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 반면 소극 행정에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본사의 완주·전주 혁신도시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인 완주·전주 혁신도시가 농협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제10대 완주군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집행부 주요업무 보고, 각종 안전 심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바이오 유망 창업 육성 본격화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서 4팀 선정 맞춤형 컨설팅 거쳐 사업화 지원

남원시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바이오·화장품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산업 창업자 도약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2026년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창업아이템 발굴부터 전문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해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단계로 지난 4월 바이오·화장품

분야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해 당초 목표인 10개 팀을 넘어 총 13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4개 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팀들은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을 비롯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두피 관리 제품, 바이오 포뮬러, 바이오 소재 활용 장 건강 제품 등 바이오·화장품 산업과 연계된 창업아이템을 제안해 기술성과 시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경진대회 이후에는 수상팀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을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창업자의 사업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시장 진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제품개발 방향, 사업계획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남원시는 경진대회와 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수상팀 4개 팀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총지원 규모는 9,500만 원으로, 대상 1개 팀에 3,000만 원, 최우수상 1개 팀에 2,500만 원, 우수상 2개 팀에 각각 2,0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도화, 브랜딩·디자인 개발, 마케팅, 제품 생산 등 창업아이템을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활용된다. 각 수상팀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상황과 성과에 대한 단계별 점검과 관리를 받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청소년 장류축제 글로벌 홍보 ‘활약’

싱가포르 국제학교서 문화교류군 ‘장문화 앰버서더’ 운영 계획

순창군은 최근 순창발효관광재단, 순창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이 해외 현장학습을 통해 순창을 직접 알리는 ‘순창 청소년 국제 홍보대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축제인 순창장류축제의 해외 홍보 기반을 넓히고,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기관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세계에 직접 소개하는 참여형 관광마케팅을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순창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싱가포르 임팩트 패밀리 국제학교를 찾아 영어로 순창과 순



<사진=순창군>

창장류축제를 소개하고, 현지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문화교류를 진행했다. 이어 난양기술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예비 글로벌 순창장류축제’와 순창의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또한 마리나베이샌즈와 메라이언파크 등 싱가포르 주요 관광명소에서는 현수막과 홍보 리플릿을 활용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순창장류축제를 알

리는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순창 장문화 앰버서더’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순창의 장문화와 순창장류축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홍보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최광호 “중소기업 화재 원스톱 복구 지원해야”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폐기물 처리비 등 지원 촉구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화재 복구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화재 피해 기업이 복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에 주목하며, 완주군이 피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속한 생산 재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장에 불이 나면 단순히 건물과 기계, 제품만 타버리는 것이 아



최광호 군의원

니다”라며 “생산이 중단되고 납품이 지연되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화재 피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공백,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이탈, 고정 인건비 부담 등 ‘사업 중단 손해’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게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기업이 다시 복구를 시작하고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신속한 복구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완주군이 화재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일부 지원 △행정절차 원스톱 지원 △관련 기관 및 전문업체 연계 △복구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화재 복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모든 화재 피해를 행정이 전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피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당장 복구를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민·관 합동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안전점검 보고회 열어 87곳 점검 55곳 대책 추진

순창군은 지난 20일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56일간 실시됐으며, 관내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 87개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 선정시설 53개소와 중앙부처 위임시설 34개소로 구성됐다. 특히 군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민생 중심시설 24개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했으며,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주민점검신청제’

대상 시설 18개소도 반영해 주민 제감형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전기·가스·건축·산업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도 운영했다. 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 건축·전력 전문업체까지 참여해 총 235건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상 시설 87개소에 대한 점검을 모두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55개소(63.2%)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군은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한 후속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농업기술센터, 벼·과수 병해충 선제 대응

농진청·농업기술원 합동 예찰 버벌구 등 발생상황 집중 점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온·다습한 기상과 이상기후로 작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벼 병해충과 과수 탄저병에 대한 현장예찰 및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작물 병해충은 발생 초기에 확인해 신속히 방제할수록 확산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병해충이 이미 넓게 확산된 이후에는 방제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농가의 약제비와 노동력 부담도 커진다. 특히 남원지역은 2024년 기루를 타고 유입된 비래해충인 버벌구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올해는 비래해충의 유입과 발생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예찰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벼 병해충 예찰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은 버벌구, 흰등벌구, 흑명나방 등 비래해충과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이며, 과수는 사과·복숭아 등 주요 과수 탄저병 중점관리 한다. 예찰 결과 병해충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농업인단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방제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우려 농가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진단과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긴밀히 협력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교육협력모델 우수사례 공유

오산대 탐방팀 교육센터 방문 지역교육·마을 연계 등 소개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선도적인 교육통합 모델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지역 중심의 교육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최근 완주군의 우수한 교육협력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오산대학교 평생학습학과 전공 탐방팀 ‘초록원정대’를 대상으로 기관 견학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오산대학교 평생학습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문화야 간다 시즌12’의 일환으로 지역교육과 마을교육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통합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비롯해 △학교·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역교육 협력체계 △교육자



<사진=완주군>

원 연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완주군의 교육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이어 학생들은 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지역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산대학교 평생학습학과 관계자는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교육통합 운영 사례와 평생교육사의 현장 역할을 직접 접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폭염 취약계층 여름나기 꾸러미 전달

산내면서 건강수칙 교육 병행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섰다. 센터는 ‘2026 전북 희망여름 착착! 나눈 캠페인 공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양식과 여름철 생활안전용품으로 구성된 ‘여름나기 건강 꾸러미’를 제작해 산내면 내 폭염 취약 75가구를 방문·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을 위해 남원시사랑의열매자원봉사단 회원들은 이틀에 걸쳐 실령량을 비롯해 수건, 양우산, 모자,

팔토시, 과일철 등이 담긴 꾸러미를 정성껏 마련했다. 봉사단은 꾸러미 전달과 함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탈수 예방 등 여름철 건강 수칙 교육을 병행한다. 또한 폭염·폭우 등 일상 속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센터는 오는 7월 말에도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와 손을 잡고 아열대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 선포

남원시립국악단이 정지아 작가의 베스트셀러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창작 국악극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오는 31일 오후 7시 청아원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총 9회 공연된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원작에 담긴 전라도 사투리의 맛을 국악의 장단과 소리로 살려내고, 장례식장에서 펼쳐지는 ‘웃음과 눈물의 3일장’을 입체적인 무대로 그려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지역적 정서와 소리, 음악, 연기가 어우러져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국악극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다.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오는 8월 13일 제25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으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치를 무대에도 오른다. 공연 관람권은 인터파크 NOL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인터파크 NOL 티켓 또는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063-620-5583, 616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가정위탁제 홍보 강화 신규 가정 발굴 본격

완주군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따뜻한 가정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가정위탁부모 발굴과 제도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1일 완주군은 부모의 이혼, 질병, 사망, 빈곤,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홍보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양육 목적과 역할에 따라 △일반가정위탁 △전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일반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단기간 돌보는 제도다.

위탁부모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 이수과 가정환경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위탁가정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보조금과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군은 현재 54명의 가정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가정위탁제도를 적극 홍보 및 지역 주민들이 위탁부모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청소년 드림 페스타’ 개최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지난 20일 오후 7시, 순창군 군민예술회관에서 ‘한여름 밤의 순창군 청소년 드림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이 공연장을 지원하고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가 공연과 행사 운영을 맡아 마련한 청소년 문화축제로, 순창군 청소년 400여 명과 학부모,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장 및 군의원, 장길한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및 순창군지부장,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 지역농협 조합장,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공식 기념식에 이어 걸그룹 AFuture 공연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크루의 팝핀댄스, DJ READY의 퍼포먼스, 순창지역 학생들로 구성된 방송댄스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신종철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은 “농촌지역 청소년들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익산 남중동 주민들, 마을축제 수익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익산시 남중동은 21일 남중동 마을축제위원회(위원장 정병관)와 지역 8개 단체가 시청을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달 '남중 앤 정(情)'을 주제로 열린 제3회 남중동 마을축제를 통해 마련됐다. 기탁금은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마을축제는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름다운재단, 자율방범대 등 남중동 8개 단체가 함께 준비했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무료 나눔을 비롯해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과 아나바다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주민들은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성금으로 기탁하며 주민 화합의 의미를 이웃사랑으로 이어갔다.

정병관 위원장은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마을축제위원회와 8개 단체에 감사드리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성내면, 통행 안전 강화 '용교천 제방 풀베기 사업' 완료

고창군 성내면(면장 이남례)이 '용교천 제방 풀베기'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성내면은 이달초부터 용교천 제방 4.8km 구간에서 걸쳐 대대적인 예초 작업과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하천 통수능력을 크게 높여 지난 약화로 인한 제방 유실 등의 재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했다. 또 농작업을 위해 제방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통행 안전을 강화하는 등 주민 불편을 크게 해결했다.

이남례 성내면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성내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임실군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마무리”

사회적 인식 개선
화합·소통의 장 마련

임실군은 일상 속 체육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 화합과 교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임실군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5일 임실군민회관에서 '2026년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내 장애인 선수단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총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다 함께 참여하는 큰 공굴리기, 풍선여행기차 등

총 6개 종목이 펼쳐졌다.

평소 체육활동을 접하기 어려웠던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한독수 임실군 장애인체육회장(임실군수)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가 승패를 떠나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5일 임실군민회관에서 '2026년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임실군>

정읍 농소동, 노모 홀로 돌보던 위기가구 지원

병원 치료 및 복지 연계

정읍시 농소동 행정복지센터가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건강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위기가구를 발견해 병원 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농소동 복지담당자는 지난 13일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했다.

해당 가구의 50대 남성은 10여 년 전 사고를 당한 뒤 집 밖에 거의 나오지 않은 채 건강과 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70대 노모가

노인 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아들의 돌봄까지 감당하고 있었다.

이에 농소동 복지담당자와 정읍시 사례관리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날 병원 이송 차량을 지원했다.

농소동은 앞으로 대상자의 치료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등 가구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농소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슈퍼와,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 지원

김제시는 21일 지역 유통업체 슈퍼와(대표 강신태)가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 10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 원 상당의 생활지원 포인트를 지원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매월 충전되는 생활 지원 포인트를 활용해 슈퍼와에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와 강신태 대표는 “작은 나이지만 일상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해 뜻깊은 후원을 실천해 주신 강신태 대표에 깊이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 '운주중 자존감 프로젝트' 성황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가 소규모 농촌 학교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또래 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교육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센터는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운주중학교 전교생 17명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인 '운주중 자존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총 5회에 걸쳐 운주중학교 여학실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다채로운 협력 활동을 통해 자신과 친구의 내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내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마련했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군산 옥도면 지사협
취약계층 40가구에 선품기 지원

군산시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기운, 공공위원장 전재언)는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1일 '시원한 바람, 건강한 여름' 선품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냉방기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폭염에 취약한 40가구로, 각 가정에 선품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기운 민간위원장은 “폭염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이번 선품기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언 옥도면장은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사업과 계절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 용진읍 부녀연합회
중복 맞아 어르신 삼계탕 나눔

완주군 용진읍 부녀연합회가 21일 정기회의를 마친 후, 중복을 맞아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위생·안전을 위해 삼계탕과 물김치를 당일 조리·포장했다.

이어 관내 어르신 36세대를 직접 방문해 음식을 전달하고,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안내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신점순 새마을부녀회장은 “무더위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보양식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미경 용진읍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애써주신 부녀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행정에서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고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본사 내방

▲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감

▲ 현용재 전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 홍보팀장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 씻기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익혀먹기



2 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끓여먹기



3 물은 끓여서 마시기

세척·소독하기



4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5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보관온도 지키기



6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

〈一事一言〉



전북은행은 주주만의 것이 아니다…
지역 금융 주권과 도민의 지분을 지켜야 하는 이유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행동주의 사모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쏘아 올린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의 ‘연합형 합병’ 제안이 전북 지역 사회 전체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산 규모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지주회사 간 시너지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기 투자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냉혹한 자본 시장의 계산법이 짙게 배어 있다. 자본의 논리가 금융의 공공성을 압도하려는 지금,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전북은행이 과연 특정 펀드나 주주들만의 전유물인가.

단언컨대 전북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오늘의 JB금융지주라는 견고한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전북은행의 반세기 역사는 곧 전북도민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전폭적인 신뢰와 애정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다. 1969년 ‘1도 1은행’ 정책의 흐름 속에서 설립될 당시, 도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젖줄이 되어달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그 출발점이었다.

1990년대 말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IMF 외환위기의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전북은행을 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전북도민들이었다. 타지의 거대 은행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지역 지점을 폐쇄하고 대출을 회수할 때, 도민들은 구좌 유지 운동과 향토 은행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며 피땀 어린 자금을 전북은행에 맡겼다. 오

늘날 JB금융지주가 누리는 견고한 재무구조와 높은 브랜드 가치는 수십 년간 지역 사회가 함께 지불해 온 역사적 지분의 결실이다.

행동주의 펀드는 두 금융지주의 합병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대형 시종은행과 맞설 수 있는 체급을 만들어 줄 것이라 유혹한다. 그러나 자본의 세계는 철저히 힘과 규모의 논리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자산 100조 원을 넘어서는 부산·울산·경남 기반의 BNK금융지주와 합병이 추진될 경우, 자산 규모가 그 절반에 불과한 JB금융지주가 지배구조와 경영권 항배에서 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만무하다. 의사결정권과 발언권이 절반 이하로 위축되는 것은 자본의 생리상 볼 보듯 뻔한 이치다.

의사결정권과 발언권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 지역 사회와 도민에게 돌아간다. 도내에서 형성된 소중한 시종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거나,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날 위험은 너무나 자명하다.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년간 공들여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이라는 핵심 국책 전략 역시 지역 거점 금융지주의 독립성 약화로 인해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합병이 수익성과 내실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JB금융지주는 비록 자산 채급

은 작을지 몰라도,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핵심 수익성 지표에서 국내 금융지주 최고 수준의 압도적 성과를 다년간 증명해 오고 있다. 내실 있고 탄탄한 ‘강소(強小) 금융그룹’으로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한 JB가, 굳이 덩치만 큰 타 지역 지주와 섞여 스스로의 정체성과 알짜 수익성을 희석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향토 금융기관을 자본 시장의 단기 매물처럼 다루며 합병을 운운하는 것은 전북도민의 역사적 지분과 자존심을 짓밟는 기만 행위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지역 금융의 공공성과 뿌리를 흔드는 자본의 공격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JB금융지주 경영진과 이사회는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자각해야 한다. 금융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숫자에 있지 않다. 도민과의 상생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저버린 주주가치 제고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금 JB금융지주에 필요한 것은 단기 사모펀드의 입김에 흔들리는 합병이 아니라, 도민의 금융 주권을 당당히 지켜내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향토 기업의 본분을 다하는 엄중한 책임의식이다.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명분은 충분하다…이제는 실현 힘 모을 때

전북축산단체연합회가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이전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축산업계까지 힘을 보탠 것이다. 농업과 축산을 아우르는 생산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는 점에서 이번 촉구는 단순한 성명 발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조직인 만큼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인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전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이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비롯한 국가 농생명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종자와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축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다. 특히 한우와 한돈, 낙농, 양봉 등 축산 전 분야에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가 전북에 동지를 튼다면 정책과 연구, 생산과 유통, 금융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다. 농업 정책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조직이다. 이러한 기관이 농업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수도권에 머물러야 할 이유보다 농업의 중심지로 내려와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

더욱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은 균형발전

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국가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농업과 농촌을 위한 조직이 농업과 농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분이 충분하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농협중앙회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은 전북만이 아니다. 다른 시·도 역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당위성보다 전략과 실행력이다.

이제부터는 전북도와 정치권, 국회의원, 시군, 농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관 유치는 선언이나 결의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왜 전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농생명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정파를 떠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농협중앙회 이전은 단순히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농생명 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농업과 축산 현장의 절실한 요구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할 때다.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정치력과 실행력이다. 전북이 더 이상 기회를 놓치는 지역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내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아무도 슬프지 않도록 / 정 호 승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무도 슬프지 않도록
그대 잠들지 말아라
마음이 착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닌 것보다 행복하고
행복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있나니

차마 이 빈 손으로
그리운 이여
품의 꽃으로 태어나
피의 꽃잎으로 잠드는 이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대 잠들지 말아라
아무도 슬프지 않도록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제10회 동서문학상, 제12회 정치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등이 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8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ㅣ독자투고ㅣ

아빠가 되어보니 보인 ‘임산부 안심+119구급 서비스’의 가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는 오늘날, 이 격언은 국가와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로 다가온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임산부와 영유아, 청소년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장치는 복지를 넘어 생존의 문제다.

과거 소방 현장과 행정 영역에서 서류로만 접하던 정책들이, 내가 한 가정의 남편이 되고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아내의 임신 기간에는 작은 몸짓 하나에도 가슴을 졸였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갑작스러운 열

에 밤새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였다.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나서야 응급의료 취약계층이 매 순간 마주하는 불안감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안을 가장 든든하게 붙잡아 준 것이 바로 ‘임산부 안심+ 119구급 서비스’다. 사전에 임산부인 아내의 상태와 병력, 다니는 병원 등을 등록해 두면 응급상황 시 출동대원이 이를 즉시 파악해 맞춤형 처치와 이송을 돕는다. 말문이 막히는 긴급한 순간에도 우리 가족의 정보가 미리 출동 대원에게 공유되어 신속하게 대처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된다.

또한 안심콜 서비스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18세 이하 청소년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모두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지

역별 의료 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고품질의 응급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고 가입하여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로 삼았으면 한다.

아빠의 시선으로 바라본 임산부 안심 + 119구급 서비스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미래 세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전국민 필수 인프라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24시간 언제나 든든한 국가의 보호 아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따뜻한 서비스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공 최준영



민선 9기 완주군, 일류경제도시·행복지수 1위 도시 실현 시동



완주군이 민선 9기의 닳을 올리며 '행복경제 도시 완주 대도약'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재선에 성공, 제47대 완주군수로 취임한 윤희태 군수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교육·복지·청년정책 고도화, 정주여건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민선 9기 완주군정은 민선 8기의 주요 성과를 토대로 경제성장 고도화, 행복성장 지속화, 도시성장 가속화, 균형성장 전략화 등 4대 목표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 8기 4년이 다진 경제·도시 성장 이정표 완주군은 지난 민선 8기 4년 동안 마래 먹거리의 토대를 다지며 다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36년 만에 달성한 인구 10만 명 회복이다.

지난해 5월 27일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10만 5,624명에 도달했다. 이로써 완주군은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도내 인구 4위 도시에 올라섰다.

이러한 강세는 강력한 산업 기반 유지에서 비롯됐다. 완주군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수소특

수소·피지컬AI·방산 첨단 신산업... '행복경제도시 대도약' 완수

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취임 초기 분양률이 30.6%에 머물렀던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로젠 분사 등 36개 기업을 유치하고 1조 2,363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올해 3월 산업용지 100% 완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물류용지 10만 평이 매진되어 호남권 중추 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구축했다.

신산업 분야의 약진도 뚜렷했다. 이서면 일원에 총사업비 389억 원 규모의 피지컬AI 선도모델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실증사업 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아울러 테크노제1산단 일원에 전북 최초로 총사업비 2,800억 원, 20메가와트(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 짓고, 전북도 및 전주시와 협업해 총사업비 490억 원 규모의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선정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9기 5대 중점과제와 첨단산업 일류경제도시

민선 9기 완주군은 '미래를 향한 비전, 행복경제도시 완주 대도약'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중점과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중점과제는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일류경제도시,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복지, 강하고 풍요로운 농업·

농촌, 머물고 즐기는 문화관광·스포츠메카,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이다.

군정 운영의 원칙으로는 변화와 혁신, 성장과 균형, 실천과 성과, 신뢰와 화합을 수립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이서면 일원에 100만 평 규모의 '대한민국 최초 피지컬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산업·정주 기능이 결합한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소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는 완주산단 5개소에 7천억 원 규모로 추진해 전후방 산업 기반을 다지며, 테크노제1산단에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해 AI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10만 평 규모의 물류단지과 광역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호남권 중추 물류 허브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자체 지원금 지급과 돌봄·교육혁신 고도화

민생안정과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군민 체감형 정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위기에 대응해 오는 9월 중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자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임기 중에는 총 10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봉동읍 일원에 총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해 컨벤션홀과 청년문화센터 등을 갖춘 '완주

산업단지 랜드마크'를 조성해 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20억 원씩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해 지역 내 교육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 최상위 단계 재인증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여성·노인을 포함한 '4대 친화도시' 인증 확대를 추진한다. 출산가정에는 세대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신규 도입하며, 봉동읍 창의키움센터(도시형)와 고산면 미래행복센터(농촌형)를 거점으로 '완주형 365 통합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햇빛소득 기본사회' 실현과 문화·체육 메카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선도적 수익 모델인 '햇빛소득 기본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마을별 태양광 발전사업을 단기 10여 개 시범 마을에서 시작해 중기 200여 개, 장기 577개 전 마을로 전면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기존 28%에서 50%까지 끌어올리고, 유휴부지 발전 수익금으로 '완주형 에너지 환원'을 조성해 군민에게 환원한다는 복안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일일 100톤 규모의 발효사료 가공시설 건립,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확충도 병행한다. 로컬푸드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시,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수도권 직매장 개설도 검토

하고 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이서·구이·삼례 지역에 각각 18홀 이상의 공공 파크골프장을 신규 확충해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삼봉문화체육센터와 제2 야구장 등 생활권별 복합문화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만경강 생태주차장 일원을 경관 관광 자원으로 육성한다.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경강 물고기 철길' 조성 사업은 올해 8월 준공을 거쳐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총 10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구축도 추진한다.

권역별 특화 균형발전과 대통합 위원회 가동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관내 읍면을 4대 권역(신성장 중심·산림관광·도농휴양·혁신연계)으로 설정해 권역별 특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봉동읍 일원에 5천 세대 규모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삼례·봉동·용진을 상호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주거 핵심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국립 사회경제적 인재개발원, 완주세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전북경찰청 특공대 등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고산면 도시가스 신규 공급과 기존 배관 인근 미공급 마을 5개 구간 연장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도 완성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제10대 군산시의회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산시의회